

태광그룹, 본격적인 구조조정 불가피

장하성펀드와 지배구조 개선 전격합의 ... 유선방송계열 지주회사 설립

태광그룹은 앞으로 유선방송사업 계열사를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장하성펀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1명씩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대한화섬은 유휴자산 활용계획 등을 수립해 2007년 주주들에게 발표하기로 했다.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경영진이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했다며 12월14일 발표했다.

KCGF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티브로드 천안방송 지분(67%)을 자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보유한 티브로드 중부방송 지분 17.64%를 취득하고 중부방송과 천안방송을 합병해 태광산업의 천안방송 보유 지분을 늘리기로 했다.

또 주요 유선방송회사의 지분을 태광산업 또는 태광산업의 자회사에 매각토록 해 태광산업의 실질적 기업 가치와 지배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화섬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유휴자산의 활용계획 및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07년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생각하고 있는 영업 및 자산효율성에 관한 최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 상반기까지 유선방송사업자로서 소유구조의 투명성 증대 및 경영, 투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태광그룹 계열의 유선방송사업 전 계열사를 모두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신설하고 태광산업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50%+1주를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설되는 태광그룹 유선방송사업 지주회사는 상장 등 태광산업의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와 투명한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각각 펀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며, 태광산업은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과거 5년간 전직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은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핵심 경영진 중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겸직도 해소하기로 했다.

감사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태광산업이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투명한 내부거래 절차를 제정하고 모든 계열사, 대주주, 특수 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각각 감사위원회에, 펀드가 지명하는 사외이사에 각각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주주중시 경영 및 윤리경영을 위해 회사별로 IR팀을 신설해 주가정책과 배당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KCGF는 8월 대한화섬 지분 5.15%를 보유했다고 공시한 데 이어 9월부터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지배구조 개선활동을 시작했다.

KCGF는 태광산업에 대해 이호진 회장과 아들 현준씨가 전주방송을 이용해 태광산업 소유였던 티브로드 천안방송 지분 67%를 편취했다며 이사회에 개입권 행사를 요청한 데 이어 대한화섬에 주주명부열람 요청과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었다.

그러나 최근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경영진과 펀드간 기업지배구조개선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대한화섬 측은 실질주주명부를 제공했으며 펀드측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4>